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

한국불교학회

2008겨울

학술워크샵

일시 : 2009년 2월 3일(화)
14:00 ~ 18:00

장소 : 불 광 사

주최 : (사)한국불교학회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

한국불교학회

2008겨울

학술워크샵

- 일시 : 2009년 2월 3일(화) 14:00~18:00
- 장소 : 불광사(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식순

제1부 개회식

14:00~14:40
사회 : 하춘생(총무이사)

삼귀의례
반야심경
감사패 증정
기금전달
회장인사
회주스님 환영사
축사
참가자 소개
공지사항

제2부 Workshop주제발표

14:50~16:50
사회 : 김용표(동국대 교수)

주제 :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

주제발표1 :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
발 표 자 : 우희종(서울대 교수)

주제발표2 :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
발 표 자 : 안성두(금강대 교수)

지정토론 : 조성택(고려대 교수) / 허남결(동국대 교수)
총 평 : 김선근(본회 회장)

사홍서원

제3부 저녁공양

17:00~18:00

인사말

희망의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그동안 법체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불교학회가 2008학년도 겨울워크샵을 이곳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교육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여러가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워크샵의 주제로 선정한 「불교의 생명존중사상과 동물의 생명권」이라는 기조와 잘 어울리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불광사를 창건하신 法主 故 光德 큰스님께서는 1970년대 「순수불교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주창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보신 바에는 인간은 어느 누구의 피조물이거나 상관적 존재가 아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절대의 自存者며 무한자며 창조자다. 일체 신성과 존엄과 가치와 권위는 그로부터 由因한다. 그것은 인간이란, 구극의 진리인 佛性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모든 德性과 능력이 본래로 구족하다. 지혜나 자비는 그의 생리며 체온이다. (중략) 헌데, 오늘날 우리의 세태는 그렇지만은 않다. (중략) 자원고갈, 환경파괴, 인구폭발, 異常氣象, 기아만연, 전쟁위기…, 게다가 극도로 거칠어진 무도덕성의 물결은 우리 주변 어느 한구석도 안전지대로 남겨두지 않는다. (중략) 이것은 가치의 접탈이며, 행복의 포기며, 인간의 자기부정과 통한다. 우리는 참으로 般若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迷惑에서 벗어나 人間實相을 바로보고 人間福地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중략) 이것은 人間本然의 영광을 이 땅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불광사는 광덕 큰스님의 「순수불교선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겠다는 원력 아래 역사를 밝히는 전법도량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서원의 도량에서 우리 학회가 학술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威光을 전달하는 使命을 自擔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가 이곳에서 겨울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도록 훌륭한 법석을 베풀어주신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을 비롯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주신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승불교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佛性을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悉有佛性). 그래서 聖凡의 차이는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佛性을 깨우쳐 참된 自我를 실현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본래적인 自我實現에 치중한다고 하여 결코 '나' 라는 개별적 自我를 고집하면서 나 밖의 他人을 배격하거나 돌보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自我의 位相을 보편적인 상관관계성(緣起)에서 인식하고, 나 이외의 他人들도 나와 똑같이 보편적인 상관관계성에 얽혀 있는 개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한 몸이다(萬人一體觀)' 라는 관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각 개인은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自己와 他人이 궁극적으로 한 몸이라는 생각은 自他가 둘이 아니라(自他不二)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自他가 同一하다면 이것은 萬人이 平等함을 의미합니다.

眞理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을 慈悲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곧 대승불교가 自他平等思想을 실현하는데 修道의

理想을 두고 있는 까닭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몸이다' 라는 사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生物, 나아가서는 無生物까지도 모두 한 몸(萬有一體觀)이라는 사상으로까지 전개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모두 한결같이 佛性이 있는 까닭에 그것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不殺生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大乘佛敎의 慈悲는 이처럼 온갖 動物 有機體와 無機體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慈悲는 모든 生物에 미치는 사랑으로 자기의 가족 · 자기의 문벌 · 자기의 종파를 초월하는 것, 즉 철저한 自己愛의 극복을 뜻합니다. 偏愛를 초월한 이타정신은 비단 인간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鳥獸 등 모든 生物類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금강경』「대승정종분」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모든 보살마하살(Bodhisattvamahāsattva)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 받을지니라. 있는 바 일체의 중생의 종류인 알에서 태어난 것(卵生), 어미 태 안에서 태어난 것(胎生), 습기로 태어난 것(濕生), 자체가 없으며 의탁한 데 없이 홀연히 생겨난 것(化生), 욕계와 색계에 사는 형상이 있는 것(有色), 순정신적 존재인 세계의 형상이 없는 것(無色), 생각이 있는 것(有想), 생각이 없는 것(無想),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非有想非無想), 이것들을 내가 무여열반(無餘涅槃, anupadhiśeṣa-nirvāṇa)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1)

> 이와 같이 한량없고, 셀 수 없고, 가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실로 멸도(滅度)를 얻는 중생이 없느니라.2)

위의 1)에서와 같이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일체의 중생을 무여열반(無餘涅槃)에 들게 하는 자비의 원력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보살마하살은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 즉 구류중생(九類衆生)을 제도한다고 하는, 이타행을 강조하는 실천주의적 불교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깨달음을 타인의 깨달음으로 회향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체제법의 공관에서 보면 제도하는 자와 제도받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위의 2)는 잘 설해주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반야바라밀'을 인식한 보살이 보시와 인욕의 정신을 가지고 보살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중생의 의식을 般若로 깨부수어 태양광명과 같이 밝은 지혜로써 이치에도 일에도 막힘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敎示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同體大悲思想을 우리 사회에 보편화 · 대중화 시키는 것이 우리 학회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학회의 워크샵에 발표자로 모시게 된 서울대 우희종 교수와 금강대 안성두 교수께서 무척 뜻 깊은 담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오늘 워크샵을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학회 워크샵에 참석하신 사부대중께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하시는 일마다 원만히 성취되어 항상 안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2월 3일

(사)한국불교학회 회장 **김 선 근** 합장

목차

주제발표1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 **11**

발표자 : 우희종(서울대 교수)

주제발표2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 **27**

발표자 : 안성두(금강대 교수)

주제발표 I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

발표자 : 우희종(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

우희종 (서울대 교수)

I. 들어가며

생명존중사상에 근거를 두어 불살생을 기본 계율로 삼는 불교가 동물의 생명권을 전제로 '동물 학대 현황과 실태' 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이것은 정부 보고서나 단순한 과학 연구보고서처럼 통계 수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비폭력의 가르침을 지닌 불교도에게 있어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기본적으로 폭력의 한 유형이자 행위자의 무지와 닫힌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전형적인 탐진치라는 삼독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1] 따라서 '한국에서의 동물 학대 현황과 실태' 라는 주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이는 곧 '동물에 대한 우리들 마음가짐의 현주소 '를 밝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동물의 권리나 동물 학대라는 말에도 학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물의 입장이 아닌 인간만의 입장을 정당화하여 동물을 도구화 하는 것이 학대에 해당될 것이요, 좁은 의미로는 누구나 눈을 찌푸리게 되는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처사가 될 것이다.[2]

한편 동물에 대한 학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바탕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이란 무엇이며, 왜 불살생이라는 생명 존중의 입장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점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가 필

1)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Peter Harvey p156-1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2) '육식 습관과 동물의 권리' 허남결, 『불교평론』 213-234, 2008 겨울호,

요한 이유는 불가에서 불살생이 강조되면서 마치 생존이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죽음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많은 불교인들이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생명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하고 죽음은 어떠해서든지 피해야만 하는 것일까? 탄생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시간의 부정과 더불어 나라고 하는 개체의 무상성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대승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있는 개체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생명 존중의 교학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하다. 불교도로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 없이 단순히 불살생이나 생명존중이라는 당위성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에 대한 폭력성을 풀어가기는 어렵다.[3] 불교에서의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은 윤리나 권리의 수준을 넘어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그동안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환경이나 생태 문제라는 거대 담론의 형태로서 비교적 풍성하게 이야기 되어왔으나,[4] 그러한 논의의 근거인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불행히도 실생활 속에서의 불교의 불살생 정신은 그 동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규범으로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주위에서 흔히 보듯 사찰 신도회의 기복적인 방생 행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방생하는 이들의 생태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는 상황까지 있었다.

이런 면에서 후기 산업사회의 대량 소비문화와 더불어 경쟁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동물 상황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는 계기로서 한국 내의 동물 학대 현황과 실태를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3) '불교는 왜 불살생을 권하는가' 정덕, 『불교평론』 194-214, 2008 겨울호

4) '불교와 생태학'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5

II. 이야기들

동물의 생명권에 바탕을 둔 우리사회의 동물학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양적인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식문화의 일상화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내 생명과학과 의학 연구의 활성화에 수반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실험동물 등의 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한편, 질적인 면에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발전되어 온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추구해야할 덕목으로서의 생산성과 효율은 산업동물의 사양 및 도축 환경에 대한 철저히 무시를 조장해 왔고, 실험동물의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남용은 물론, 증가하고 있는 유기견 문제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 국내에서 희생되는 동물현황[5)]

국제 사회의 OECD(국제 경제협력 개발기구) 일원국인 한국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일인당 육류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목축산업의 비대화와 생산량 증가를 위한 업자들의 노력은 생명체인 동물을 단순 산업 소비재로 취급하는 기업화된 축산 산업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육된 후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의 양적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

5) '통계수치로 살펴본 동물 희생' 우희종, 『불교평론』 234-246, 2008 겨울호

1) 사육 규모

표 1의 통계에서 보듯이 소는 국내에서 연평균 250만~270만 마리의 규모가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는 9백만~9백50만 마리, 닭은 1억~1억 3천만 마리 규모의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6] 이러한 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0% 정도의 범위에서 변동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도축 규모

2007년도에 국내에서 도축된 가축의 통계를 보면 표2에서 보다시피[7] 소는 60~70만 마리소가 매년 도축되고 있으며, 돼지는 1천3백만 마리 내외, 닭은 6억~6억5천만 마리, 그리고 오리는 3천만~4천만 마리의 규모로 도축되고 있다. 닭과 돼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수보다 도축되는 동물의 수가 많다는 것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돼지와 닭은 태어나 1년도 되지 않아 신속히 도축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료 효율 및 육질 등을 고려하여 생산성을 포함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돼지는 생후 5개월 전후, 닭은 부화 후 3-4개월이면 식용으로 도축되고 있다.

3) 수입규모

2007년 12월에 잠정적으로 계산된 농림부의 '축산물 수입 검역통계 순기보고('07년 12월)' 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육되어 도축됨으로서 희생되는 가축 외에도 국내 육류 소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육류가 다양한 나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3). 이 2007년도 수치에는 2008년도 후반기에 수입이 전면 재개된 미국으로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12.자료. 출처 http://livestock.nonghyup.com/
7)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

부터의 쇠고기 수입 상황과는 달리 당시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물량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민의 육류 소비량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또한 이 자료에서 보듯이 다양한 육류 수입국의 분포를 볼 때 육류 소비의 문제는 전 세계적 내지 지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구 분		소	돼지	말	양	닭	오리
국내도축현황	1/4분기	179	3,392	0.2	3	134,014	8,190
	2/4분기	147	3,337	0.2	3	170,713	10,760
	3/4분기	185	3,212	0.2	3	188,114	12,246
	4/4분기	173	3,734	0.2	3	144,889	10,991
	2007년 실적	684	13,675	0.8	12	637,730	42,187
	2006년 실적	630	13,003	0.8	13	608,562	30,560
	전년도대비	108.5	105.2	100.7	90.8	104.8	138.0

표1. 2007년도 축종별 도축 현황(단위; 천두(수) 및 %). 수의과학검역원 자료.

구 분		'05.12	'06		'07			
			9	12	3	6	9	12
소	총 마리수	2,298	2,489	2,484	2,504	2,635	2,675	2,654
	– 한 육우 이중 한우	1,819 1,633	2,021 1,843	2,020 1,841	2,043 1,871	2,179 2,006	2,220 2,051	2,201 2,034
	– 젖 소	479	468	464	461	456	455	453
돼지	총 마리수 – 모 돈	8,962 966	9,369 1,006	9,382 1,012	9,345 1,006	9,462 1,022	9,659 1,013	9,606 1,004
닭	총 마리수 – 산란계 – 육 계	109,628 53,392 50,422	119,164 55,388 57,713	119,181 57,238 55,375	126,257 56,525 63,350	151,114 56,542 87,359	121,779 55,117 59,946	119,365 56,093 56,227

표2. 국내 가축 사육현황(단위 : 천두(수), 2007. 12. 1일 기준)
단, '06년부터 닭은 3,000수 이상 사육가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

8) 참고로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약 34 kg –쇠고기 7kg, 돼지고기 18 kg, 닭고기 9kg으로 알려져 있다.

4) 어류

구 분	국 가	2006년 누계	2007년 누계
쇠고기	호주	137,015	147,593
	멕시코	2,829	2,550
	뉴질랜드	39,561	38,355
	미국	-	14,630
총계		**179,405**	**203,128**
돼지고기	오스트리아	10,971	14,002
	호주	691	321
	벨기에	18,539	16,830
	카나다	26,060	29,505
	칠레	22,348	31,873
	덴마크	10,034	11,101
	스페인	8,261	11,212
	핀란드	1,799	2,338
	프랑스	18,245	21,540
	영국	877	828
	헝가리	9,635	10,206
	아일랜드	65	371
	아이슬랜드	-	18
	멕시코	894	1,749
	네덜란드	10,746	13,502
	폴란드	10,153	11,629
	스웨덴	282	735
	슬로박공화국	-	175
	미국	60,862	70,384
총계		**210,462**	**248,319**
닭고기	호주	2	-
	브라질	18,164	19,748
	덴마크	1,960	1,510
	미국	38,726	16,671
총계		**58,852**	**37,929**
오리고기	프랑스	1	1
	대만	-	1,020
	미국	44	15
총계		**45**	**1,037**

표3. 축산물 수입 검역통계 순기보고
(단위 : 톤, 통계확정 전 잠정치 – '07년 12월)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육류 외에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표적 육류 중에서 어패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어류의 통계로서 정확히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알 수 없지만 전체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보면, 매년 250만~300만 톤의 규모의 어류가 인간을 위해 포획 내지 양식을 통해 희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9)]

이상과 같이 국내에서의 식용 동물의 규모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이러한 통계 수치 외에도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오리, 토끼 등 여러 동물의 숫자는 물론, 정확한 통계 수치는 없으나 한국 문화 속에서 몸에 좋다는 이유로 선호되어 식용으로 대량 사육되고 있는 개나 사슴, 뱀 등의 동물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Marine fisheries				Inland water fisheries		
년도	종합	소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소계	어로	양식
2000	2,514	2,494	1,189	653	651	26	7	13
2001	2,665	2,647	1,252	656	739	18	6	12
2002	2,476	2,458	1,096	782	580	19	6	13
2003	2,478	2,467	1,097	826	545	20	6	14
2004	2,519	2,494	1,077	918	499	25	10	15
2005	2,714	2,690	1,097	1,041	552	24	8	16
2006	3,032	3,007	1,109	1,259	639	25	7	18

표4. 국내 어업형태별 어획량 (단위 : 1000 M/T)

9) 해양수산통계연보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Statistical Yearbook of Maritime Affairs & Fisheries', Each year), 해양수산부,

2. 산업소비재로서의 동물과 사육 환경

생명체가 아닌 산업소비재로서의 동물 학대는 기업형 공장식 축사로 상징되는 열악한 사양 환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10] 산업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논리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로 가속화 되고 있으나 다만 서구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인식으로 상황은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산성에만 주목하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작용으로서는 동물을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항생제와 호르몬제의 과다투여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남기게 되고 더 나아가 기후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1) 산업형 공장식 축산 환경

수많은 소나 돼지가 좁은 공간에서 빽빽이 관리되는 모습과 더불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축장 모습으로서 신속히 도살된 사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껍질이 벗겨지고 지육(carcass)화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산성 증대와 사양 관리 효율의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집약형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은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수명 단축을 일으킬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단시간 내의 체중 증가를 위해 사용되는 농축 사료는 동물에게 산혈증(acidosis)도 일으킬 수 있으며, 집단 관리를 위해 투여되는 항생물질은 체내 잔류 항생물질로 남기도하고 항생제 내성 병원체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관리된 도축 환경이라는 것도 실제 상황이 되면 매우 열악

10) '동물의 역습' 마크 롤랜즈 p178-283 달팽이 2004
11) http://www.ciwf.org.uk/resources/lecture/default.aspx

해진다.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을 통한 잉여 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영의 관점에서 생산비와 관리비 절약을 위해 그나마 만들어져 있는 규칙을 무시하고 적당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 부적절한 도축이 진행됨은 다우너 소를 적당히 도축시켜 식용으로 둔갑시킨 미국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기업형 축산에서 소는 풀 대신 인간이 조합해 만든 옥수수, 대두, 보리 등으로 만든 사료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족의 동물성 폐기물이 첨부된 강화 사료를 섭취하고 고기가 질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운동도 제한된다. 닭, 돼지, 더 나아가 보신용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나 곰과 같은 동물들도 생산성을 위해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며 이러한 사육환경의 미비로 인해 더욱 높아진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량의 항생물질을 투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 관리되지 않는 실험동물의 남용

비록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험동물의 수치에 대한 공식적 조사 자료는 없어 그 양에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국 실험동물학회에 따르면 대략 연간 500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험동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어 사육이나 실험 방식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5년 이내의 일이다.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및 반려 동물에 대한 법령인 동물보호법의 꾸준한 개정 노력과 더불어 동물을 사용한 실험에 대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실험동물 대체기법개발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식약청을 중심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3) 심각해지는 반려 동물 현황

최근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고, 보다 친근하고 손쉽게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나 불행히도 아직 반려 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 IMF가 터진 시점 이후 국내에서는 유기견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유기견의 증가가 관찰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게도 적용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 시설이나 체제는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숫자와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4) 인간 중심의 동물 권리

비록 숫자는 그리 크지 않을지 모르나 불교적 관점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이며 이들을 이용한 동물공연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통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12]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인식 부족과 삭감된 비용 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그나마 문제의식을 지닌 시민들의 모임과[13] 참여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 보고된 내용이 있다.[14]

3. 동물 생명권과 인간

동물의 생명권으로 본 동물학대 현황과 실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각각의 사례는 이

12) '동물에게 귀 기울이기' 마크 베코프 p300-353 아이필드 2004
13) http://www.kaap.or.kr/
14) '슬픈 동물원 2004-서울대공원 동물원 보고서 ' 하호 2004

미 온라인상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굳이 이 글에서 열거하지 않았다. 각자 의지만 있다면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그러한 사례에 쉽게 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동물을 물건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낱개의 사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총체적인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에 대한 심각한 현황은 결국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가짐 문제일 수도 있다. 동물을 돈 버는 물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간처럼 각자 자신만의 삶이 전제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것인가.[15]

분명한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동물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성찰 없이는 그 무엇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국내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 실태를 양적이나 질적인 것을 떠나서 간략히 줄여 말한다면 '동물도 생명체' 라는 인식이 너무도 부족해서 생겨난다고 말 할 수 있다.

Ⅲ. 나가며

끊임없는 인간의 육류 소비와 이를 위한 축산 산업의 비대화는 인구 증가에 따른 지구상의 식량 위기도 조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마치 석유라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 문제의 현실화라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육식이라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많은 동물의 희생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인간의 육식 습관을 일시에 던져버리고 채식만 하라고 하는 원론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동물이라는 개념을 살펴 사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5) 'Buddhism and Animal Rights' Paul Waldau, (in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Ed. Damien Keown, p81-112) Curzon 2000

같은 맥락에서 동물의 생명권이나 불살생계를 이야기할 때 불자들이 종종 듣게 되는 것이 '그러면 식물도 생명이니까 먹지도 말고 죽어야겠네' 라는 식의 질문이다.

이러한 흑백 식의 이분법적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간단하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의상존하고 있다는 연기법이다. 육식문화를 포함해서 동물의 생명권 문제를 생각할 때 위의 질문과 같은 이분법적 오류를 떠나 생각해 보면 된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에도 이성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부처님이나 하느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육식의 문제 역시 하느냐 마느냐라는 흑백의 단순 논리로 풀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권리를 지닌 주체로서의 동물을 상정해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육식을 하고 스포츠를 위해 동물을 죽이며, 실험을 위해 죽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식구처럼 같이 생활하면서 과연 어디까지를 된다, 안된다 하며 한 가지 잣대로서 명확한 분리선을 그을 수 있을 것인가.

생명존중의 구체적 표현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16] 티끌에 온 우주가 담겨있고 동시에 온 우주 역시 티끌임을 아는 불자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하나의 개체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전 우주를 담은 소우주이며, 따라서 개체고유성을 지닌 한 생명이 죽어 사라질 때 유일무이했던 그 소우주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기에 생명존중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가르침이다.

그러나 또한 연기적 관계성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가 주위와의 관계성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태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된다. 따라서 단 한 순간의 나의 생존이라도 다른 생명체의 죽음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 존중을 무조건 생존 쪽으로만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와 나의 열린 연기적 관계성을 무시한 나만의 생존이라는 아상(我相)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중이 결코 생명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명을 존중하되 결코 머무르지 않음이다.

16) '불교의 생명개념과 불살생계' 김성철, 『불교평론』 170-193, 2008 겨울호

한편, 동물 생명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과 더불어 현실적 맥락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해도 현재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적인 욕망의 추구는 동물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한다.[17] 이제 굳이 생태적 관점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이러한 면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인간의 생존과 동물의 생존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동물과 사람 모두 유사한 생명체로서 생존을 위한 욕망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욕망은 환경에 의해 조절되지만, 인간은 환경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에 억압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적 욕망을 통해 다시금 억압되는 욕망 재생산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강박적인 인간의 중독된 욕망은 반복을 거쳐 스스로를 욕망의 굴레 속에 넣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를 파괴한다. 인간이 자행하는 살상과 동물 학대의 업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새로운 돌연변이의 출현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지 모르는 조류독감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광우병이나 사스 등의 신종인수공통질병도 결국 경제와 실용 논리로 무장한 인간 욕망의 산물이다.[18]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 속의 동물 학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내는 거울이다. 생산성이라는 탐심과 육식에 깔려 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빚어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무지라는 치심의 반영이다. 이러한 탐진치라는 우리의 모습은 동물을 돈으로 바라보는 욕심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애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이웃으로서 어우러질 수 있는 인식에의 전환이요, 가치 기준의 전환으로 극복될 수 있다. 그렇기에 동물 학대가 일상화되고 더욱 증가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물 생명에 대한

17) '에콜로지카' 앙드레 고르, p95-110, 생각의 나무 2008

18) '동물의 욕망, 인간의 욕망' 우희종 p319-324, (욕망 :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한자경, 이덕진, 박찬국, 권석만, 우희종 저) 운주사 2008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운동을 통해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 불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불자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소욕지족이라는 언제나 새로운 옛말이 될 것이다.

주제발표 2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

발표자 : 안성두(금강대 불교 · 복지학부 교수)

불교정신과 동물의 생명권

안성두 (금강대 교수)

1. 서구사상과 비교하여 불교를 대표적으로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가 불살생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고 또 불교인 스스로도 이를 처음부터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불살생은 이미 초기불교부터 계와 선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간주되어왔고 이 조항은 승려뿐 아니라 재가신자에게도 타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불살생의 대상이 사람 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율장에 있어서 명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양사상에 호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 동물들은 만들었다는 성서적 사유와 비교하여 동양사상, 특히 불교가 가진 생명의 평등성의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서 언급하곤 한다.

하지만 현금 우리 사회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살생의 문제, 특히 동물의 살생의 문제를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또 그런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 있어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서구의 그것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것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가를 되묻게 된다. 불교가 사회의 지배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조차도 광범위한 어류의 남획과 동물의 사육공장화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드물다. 오히려 서구사회에서 항의의 목소리가 더 높은 지경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까지의 안락한 소비문화를 바꾸고 생태학적으로나 불교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생활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운동은 비록 없지는 않으나 아직도 불교계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고 사회전반으로 확산되

기에는 역부족인 듯이 보인다. 현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살아가는 불교도에게 있어서 조차 연기의 교설은 동물들의 불행한 생존을 당연시하는 이론으로, 또 육도 윤회로서의 중생의 존재론적 위계성은 먹이사슬의 위계성으로 재포장되어 불교도의 양심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일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하에서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동물의 살생과 관련된 서술을 슈미트하우젠 교수의 논문들을[1] 중심으로 테마화하고 이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불교의 전통적 기술들이 보여주는 정신적 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물의 권리에 대한 현대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런 논의가 불교정신의 배경 하에서 어떻게 사회적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자.

2. 동물의 살생과 관련된 불교문헌의 기술들

– 불교가 다양한 지역과 상이한 문화적 지리적 조건 하에서 발전해 왔음을 고려할 때, 불교전통의 육식에 대한 태도는 획일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불교적 정신성을 고려하면서 이들 문제가 현재 우리의 문제와 관련되어 어떻게 대답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상황론적으로 타당하리라 보인다. 이하가 불교전통에 보이는 식육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포인트일 것이다.

– 동물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존재의 가장 기본적 구조로서 인식되고

1) 본 발표는 Lambert Schmithausen의 몇 가지 논문, 예를 들면 Meat-eating and Nature: Buddhist perspectives (2005), Tier und Menschen im Buddhismus (1998), Maitrī and Magic: Aspects of the Buddhist Attitude Toward the Dangerous in Nature (1997), Buddhism in Environmental Ethics: Some Reflections (1994)을 중심으로 불교에서 동물살생이나 식육의 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있다 (T 3: 467b18-23). MN II 169에서 이러한 생존방식은 불행하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이상적 세계에서 예를 들어 色界나 淨土에서 동물의 존재는 설정되지 않거나 육식 동물은 언급되지 않았다.

- 본생담의 석가모니가 전생보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에서 (시비왕 이야기 또는 굶주린 암호랑이 이야기) 보살의 영웅적 행위는 이런 먹이사슬을 이타적 자기희생을 통해 극화되고 있지만, 먹이사슬은 불가피한 하나의 자연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살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왜 동물의 살생만이 문제되고 식물의 파괴는 언급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 내지 불교의 종교적 관념에서 식물도 과연 중생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이나의 경우 또는 동아시아전통에서 일체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체 속에 식물은 물론 산하대지도 포함시키는 전통이 있다. 이런 해석의 경우 생태학적 윤리학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율장에서 식물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가벼운 죄로 간주되었지만 식물에게 과연 감각이 있는지의 여부는 윤리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육식과 관련해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정신성은 무엇인가?

- 출가승려의 경우 초기에 사문적 전통에 따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탁발을 통해 食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을 지키고 있다. 탁발해서 얻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잉여물' 로 간주되었고 그것이 달콤한 고기건 생선이건 불교도는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 기본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 여기서 남은 '고기' 와 동물의 살생의 문제는 처음에는 문제

거리가 되지 않았다. 다만 교단이 형성되고 재가신자로부터 초청받는 일이 빈번해졌을 때 제한적으로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한" (trikoṭi- pariśuddha) 경우에, 즉 보거나 듣거나 자신을 위해 도살되었다는 의심이 없을 경우 제공된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慈心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MN I 368-371은 설명된다.

- 육식을 금욕적 이유에서 금지시키려는 시도는 있어왔지만, 초기시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다만 무덤가에서 부정관 등을 수습하는 승려에게는 배회하는 야수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육식의 금지가 주문되었다.

- 이러한 주류전통에 반해 불교에서 철저한 육식의 금지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약 400년경 편찬된 〈대승 열반경〉. 〈능가경〉 등 일련의 대승경전에서 부터였다. 이것이 당시 인도 바라문계급의 철저한 채식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능가경〉에서 "비불교도조차 고기를 먹지 않는데, 자비를 기본교의로 하는 불교도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서의 그 핵심논점은 식육이 자심을 해치며 따라서 보살행을 장애한다는 점에 있다. 식육하는 사람이 내뿜는 공격성이 다른 동물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 〈앙굴리말라경〉은 모든 존재가 무시 이래 언젠가 부모였던 적이 있거나 가까운 친척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모나 친척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간주한다. 또는 일체 중생은 여래장을 갖고 있기에 그들의 본성은 자신의 본성과 하등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의 고기와 자신의 고기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보다 윤리적으로 중요한 주장이 〈능가경〉에서 제출되고 있다. 육식을 함에 의해 고기의 공급이 가능케 되기 때문에 식육자는 간접적으로 살생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復次 大慧 ! 凡諸殺者, 爲財利故, 殺生屠販. 彼諸愚癡食肉衆生, 以錢爲網而捕諸肉. 彼殺生者, 若以財物, 若以鉤網, 取彼空行水陸衆生, 種種殺害, 屠販求利. (T 16: 514a; LAS

252,15-253,9) 만일 고기의 소비자가 살생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살생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살생자와 동일한 업과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능가경〉은 중생을 유일한 아들로 보는 대비심에 의해 육식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불전에 나타난 이들 기술들은 각기 상이한 지역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교학적 배경에 따라 식육의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진술들을 시공의 맥락을 떠나 자체적으로 항구적이고 '불변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간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無常의 관점에 서 있는 불교적 정신성에 부합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경전들이 읽고자 하는 맥락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낱낱의 구체적 진술들을 맥락에서 분리시켜 해석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식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전들이 말하는 사항들을 요약해 보자.

1) 초기불교에서 먹이사슬에 얽매여 먹고 먹히는 동물적 삶의 방식은 비록 비극적인 것이지만 '자연적' 인 것으로서 인정되었다.

2) 사문적 삶의 방식에 따라 초기불교는 탁발에 의해 식생활을 해결. 여기서 가장 현실적 문제로서 부딪치게 되는 것이 고기를 공양받을 경우였다. 붓다는 인간은 먹는 것에 따라 그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와 행동에 따라 존재가 결정된다는 중도적 사유방식에 따라 공양받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용. 이런 태도는 당시 일면에서는 희생제의를 수행했던 바라문계급과 타면에서는 같은 사문전통에 속하면서도 철저한 채식을 준수했던 자이나교도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3) 종종 고행적 근거에서 육식의 포기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초기경전에 의하면 이런 해석은 부차적인 것이었을 뿐이다.

4) 본생담에 따른 보살의 영웅적인 삶의 방식은 이런 '자연성' 을 극복하고 자기희생

을 통해 윤리적, 정신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5) 불교에 있어 본격적인 육식의 금지는 4세기 경 당시의 인도에 있어서 채식주의 식단의 지배적 경향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여래장 계통에 속하는 대승경전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대승불교에서 식육을 거부하는 근거는 크게 ①보살행과 관련된 근거, ②죽인 짐승이 전생의 친척이라는 근거, ③일체중생이 여래장을 갖고 있다는 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간접적 살생죄에 해당된다는 근거 등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식육과 관련된 불교의 입장이 여러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을 본다. 이를 실용주의와 공리주의. 직관주의와 연기론적 입장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화시켜 설명하자면 초기불교의 태도가 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반면에 대승의 태도는 4)~5)의 두 입장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태도는 상기의 기술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불교윤리를 특징짓는 태도의 하나로서 역시 식육의 맥락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인다.

(a) 실용주의(Pragmatism)적 입장

실용주의란 실제적 결과가 지식과 의미와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식육에 관련된 초기불교의 태도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초기불교의 승려에게 있어 열반의 획득은 최고의 목표였고 그의 지식과 실천은 이것을 향하고 있다. 식육에 대한 절대적 금지조항을 갖고 있지 않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식육문제가 가진 난점을 피해갔던 불교의 태도는 탁발의 방식으로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극단적 일부 사문전통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육의 부정이 가진 부정적 방식으로 집착함(negative attachment)의 위험을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음식이든 주어진 것은 가리지 않고 먹었던 실제적 결과는 고기에의 탐착과 고기의

극단적 거부라는 두 극단의 회피라는 귀결을 가져왔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음식을 통해 필요한 자양분을 취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는다는데 있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거부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 정신적 완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다.

이러한 중도적 태도에 의거하여 식물은 중생의 범주에서 배제될 수 있었고 나아가 작은 미생물 등의 살생도 큰 죄로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b)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입장

공리주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요약되지만, 일체를 고통으로 보는 불교에 이를 적용시켜 본다면 '최대다수의 최소고통'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윤리는 많은 경우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는 않지만 몇몇 경우 양적 기준이 문제될 때 공리주의적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살이 불가피하게 살생해야할 상황에 부딪쳤을 때 그는 다수의 안녕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도록 권고받는다. 전통적으로 티벳인들은 작은 동물을 여럿 도살하는 대신 큰 동물 한 마리를 도살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설명 가능할 것이다.

(c) 직관주의적 입장

불교에서 동물은 결코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감각이 없는 하나의 자동기계로서 간주된 적이 결코 없었다.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윤회하기 때문에, 성자가 아닌 한 누구도 내세에서 동물적 존재로 떨어질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윤회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의 미래의 존재양태의 불확정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관점은 생사를 벗어나기를 갈구하든지, 아니면 생사를 불가피한 당연할 사태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모든 동류 중생에 대해 그들이 죽어

야 한다는 점에서 나와 동일한 본성을 갖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공성의 인식과 함께 중생에 대한 동질감(solidarity)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대승에 있어 성문의 수행도로 간주되었고, 두 번째는 icchantika라고 규정되었으며, 마지막이 보살의 행동방식으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방식은 다시 중관–유식적 사유와 여래장적 사유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방식이 직관적 방식이라는 것은 윤회적 인식에 근거할 때 생겨나는 인식이라는 점에 있다. 인도불교적 시간관에 따라 생사윤회를 無時 이래라고 받아들일 때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은 언젠가 자신의 부모형제였던 적이 있었다고 받아들일 충분한 근거가 있게 된다. 초기불교에서도 (예를 들면 SN II 189f.) 이러한 정신성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이 보살행과 구제방식의 주요이유로서 제시된 것은 대승에 이르러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있을 때, 우리는 식육의 방식을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체대비' 는 고결한 천상적 보살만이 추구해야 할 추상적인 과제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모든 현존재가 가져야할 윤리적 정언명법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직관주의적 입장의 근거를 윤회 밖에서 찾고자 할 경우 아마 우리가 의지해야할 유일하고도 윤리적 근거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 라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윤리적 황금률에 의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황금률이 초기경전에서 명백히 서술되고 있음을 본다.

> 나는 살고자 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 만일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만일 내가 [마찬가지로] 살고자 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다른 중생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존재에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에게 고

통스러운 것을 다른 존재에게 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중생의 살생을 멀리하고 타인에게도 그렇게 권해야 한다.[2)]

위의 기술은 슈바이처박사가 말했던 바와 같이 "나는 살고자 하는 존재 속에서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인간조건을 연상시킨다. 또는 보다 직접적으로 모든 존재가 고통이라는 조건에 의해 결박되어 있다는 인식 위에 대승보살행을 정초시키고자 하는 샨티데바의 설명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인간만이 해탈적 통찰을 얻을 위치에 있다는 특수성은 다른 동료 중생들에게 대한 해악과 괴롭힘, 살생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d) 연기적 관점

식육자도 살생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능가경〉의 설명은 초기불교의 문제맥락을 넘어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능가경〉의 설명은 분명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고, 경의 관점은 본질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생산물의 관계가 서로 의존해 있다는 相依性의 통찰에 근거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를 (중관학파의 의미에서) 연기적 관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식육자가 살생행위에 대해 공동적인 업보 내지 공동책임을 갖고 있다면 소비자로서의 식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능가경〉은 이어지는 설명에서 붓다는 대비를 선행요소로 함에 의해 모든 중생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로 본다고 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육식의 포기야말로 '불선한' 연기적 관계를 변혁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각성된 개인의 윤리적 행위가 공급-소비의 메카니즘에 의해 조절되는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구조를 바꿈으로써 일거에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

2) SN V 353f.

게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또는 市場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그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학자들에게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단박에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선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나 환경론적 관점에서 지금과 같은 소비문화를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개인의 자발적인 절제 내지 포기일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경전에서의 이런 다양한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이런 불교의 윤리적 태도가 현대사회에서 불필요한 동물의 살생과 동물의 '사육공장'에서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동물들에게도 생존권이 있는지에 대한 최근의 여러 논의를 간단히 스케치해 보겠다.

3.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와 관련된 현대사회에서의 논의

Animal rights란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 욕구와 권리가 인간의 그것처럼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념.[3] 동물들은 더 이상 소유물이나 음식, 가죽의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생명체의 (중생의!) 도덕적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들 동물의 권리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Animal right의 사회적 인식이 동성애자들이 약 25년 전에 당했던 그런 사회적 상황에 와 있다고 여긴다. 현재 180여개 미국의 Law school 중에서 약 100여 곳에서 Animal rights를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스페인이

3) http://en.wikipedia.org/wiki/Animal_rights#Development_of_the_idea

2008년 Animal rights를 도입했다.

Animal rights의 권리장전은 1972년 호주의 철학자인 Peter Singer의 *Animal liberation*에 의해 출발한다. 여기서 그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했다. 그는 동물이나 인간이 자연적 또는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관념을 부정하고 대신 관심의 평등한 역할(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제안했다. 그는 행위는 기쁨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한에 있어 도덕적으로 옳다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동물들이 사유하고 말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들도 감정을 갖고 있고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의 손상이 다른 존재들의 기본적 이익의 손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할만한 어떤 논리적, 도덕적 생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유명한 샨티데바의 이타심을 실현하기 위한 아래 언급된 두 명제와 비교!). 어떤 한 존재의 이익은 우주적 견지에서 다른 존재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후 Animal rights 사상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반면 Animal rights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자들은 동물들은 사회적 계약이나 도덕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의 담지자로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권리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의 권리는 타인에게 의무가 된다. 따라서 권리와 책임은 인간조건에게 특유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인간을 넘어 다른 종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하나의 '자원' 으로서 사용하는데 대해 어떤 오류도 없으며, 다만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학대를 방지하면 족할 뿐이라고 간주한다. (Animal welfare).

– 샨티데바(寂天)는 〈입보리행론〉에서 자타의 동일성에 의거하여 다른 존재의 고통이 결국 자신의 고통과 존재론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간주하고, 자타 상환법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타인의 고통과 교환하려는 이타행적 앙가쥬망을 불교윤리의 두 축으로 삼았다. 동물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하등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동물이 이러한 고통의 회피라는 평등한 목표를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은 샨티데바의 첫 번째 논지와 유사함.

– 그러나 먹이사슬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P. Singer 등의 입장에 따를 때 공리주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 더욱 콘라드 로렌츠와 같은 일부 생물학자들은 생태적 관점에서 먹이사슬이 種을 건강하게 존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물론 여기서도 개체로서의 존재와 생태학적 種을 구별해서 제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불교가 전통적으로 전자만을 인정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 현실적 차원에서 동물들의 행복권을 인정하는 것. 불필요하게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지기도 타당할 것.

4. 현실적이고 중도적인 대안의 추구

자이나교 성자들의 최고의 이상적 상태는 굶어 죽는 것이다. 그것은 아힘사를 실천하는 가장 적극적 행위였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현대인에게 어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열반 내지 정각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수행자들에게도 이상적인 방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욕계는 성적 욕망과 먹으려는 욕망 그리고 수면욕으로 특징지어진다고 간파했던 불교에 있어서 이 욕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초기불교는 이 인간존재의 한계성을 보면서 그 먹거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집착하지 않고 주어지는대로 먹으면서 보다 높은 정신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중시했다고 보

인다. 반면 대승에 있어서 불살생은 하나의 윤리적 규정일 뿐 아니라 대승불교를 특징지우는 정신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착보살의 전기에서 잘 보여지듯이 해탈적 통찰의 내용이 공성의 인식을 통해서 뿐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을 통해 채워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대승불교는 여래장 사상에 입각하여 일체중생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채식주의적 입장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금 우리나라 불교도들의 태도는 초기불교이든 대승불교이든 불교전통으로부터 어떤 심각한 영향도 받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근래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건의 하나가 천성산 도룡농 보호를 위한 어느 비구니스님의 단식일 것이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가부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한 태도가 불교전통과 합치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은 있다. 일체중생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처럼 보아야 한다는 대승의 가르침에 선다면 분명 그러한 항의는 유효할 것이다. 동시에 자신의 정신적 완성에 중점을 두면서 교단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극단적 행위를 자제했던 초기불교의 입장에서는 분명 많이 이탈된 것이라고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천성산 도룡농 보호도 좋지만 동물들의 생명권이나 환경권 보호와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맹자〉 〈穀粟章〉과 같은 맥락에 서 있을 때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 불교적 윤리성을 사회에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으며, 이것들을 포섭해서 불교적 입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것이 극단적인 비타협적 태도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서 필자는 자기의 의향과 의도를 청정하게 계발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의 정신적 태도를 따르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초기불교의 중도적 입장

을 따르는 것이 가장 원만한 태도라고 하는 인상을 받는다.

이하에서는 실제 동물의 살생이나 식육과 관련하여 먹이사슬의 한쪽 끝에 서 있는 인간이 그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비하는데 있어 권장될 수 있는 몇 가지 태도를 나열해 보았다.

–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시도:

예를 들어 가축을 사육할 때에도 동물공장 식의 집단사육을 피하기. 도살장으로 수송할 때 보다 편안하게 수송하고 도살할 때에도 고통을 최소한으로 주기.

– 동물공장에서 사육한 고기 먹지 않기:

정상적으로 사육한 고기를 구매하기. (소비자로서의 공동책임성을 의식하며)

– 남은 음식 최소화하기:

모범으로서의 사찰의 잔반 없애기. 제공된 것은 무엇이든 버리기보다는 먹는 방식을 택했던 초기불교의 탁발정신.

– 환경론적 관점에서의 육식문화의 한계와 파괴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기:

그린피스 등의 환경단체에서 주도하는 종으로서의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논평

우희종 교수의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를 읽고

발표자 : 허남결(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를 읽고

허남결 (동국대 교수)

1.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본 일이겠지만, 논평자도 어느 날 부터인가, 평소 늘 지나다니던 큰길가 양쪽 맞은편으로 다소 어색한 이름의 외식업소 간판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따라 읽기에는 마음 한 구석이 왠지 거북해짐을 느낄만한 이름들, 예컨대 “황소 한 마리 통째로 잡는 날”, “꿀꿀이와 움메”, “돼지부속 전문점”, “녹차 먹인 한우 생고기 전문점”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례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육식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고기음식들의 생산과정이나 부위별 특징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음식점들의 입간판에는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인간외의 다른 동물들(nonhuman animals)의 삶과 고통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돌아 볼 줄 아는 이른바 도덕적 사고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는 비단 논평자가 원칙적으로 살생을 금지하고 있는 종교인 불교신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왜냐하면 논평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윤리적 사고와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기대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2.

우희종 교수님의 “동물학대의 현황과 실태로 본 우리들의 탐진치”라는 논문은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육식문화와 아무런 반성 없이 지속되어 왔던 동물실험들, 비위생적이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공장식 축산농업의 현주소,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관상 및 공연용 동물들의 비인도적 처우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면서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니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더욱이 우교수님은 수의과대학 소속의 전문동물학자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무게감과 설득력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교수님은 자연과학자답지 않게(?) 이러한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인간들의 삼독심, 즉 탐진치에서 찾고 있다. 우교수님에 따르면 현대인들의 도덕적 자화상은 “생산성이라는 탐심과 육식에 깔려 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빚어내고 있는 결과에 대한 무지라는 치심”을 반영한 얼굴이라고 정의한다. 불자이신 우교수님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논평자 역시 조금도 망설임 없이 기꺼이 동의하고 싶은 부분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평범한 삶을 살다갈 일반인들에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의 완전한 극복은 요원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논평자가 좁은 소견으로는 육식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동물학대행위는, 그것이 불살생계를 으뜸으로 삼는 불교의 기본적 생명윤리관에 어긋나기 때문이든,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든, 아니면 환경파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든지 간에 원천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결국 지나친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일상생활 속에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재가불자들의 윤리

적 행위가 아니겠는가라는 반문을 던져 보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윤리학에서 말하는 '최소 윤리(minimum ethics)' 의 원리로부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3.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각종 고기류나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고기 먹기를 포기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도, 건강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환경에서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고도 잘 산다. 그것도 아주 잘 산다. 이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양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백 만 명의 채식주의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우리가 육식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면 정작 우리가 잃는 것은 소중한 생명도 아니요, 없어서는 안 될 건강도 아니다. 그저 '식탁 위의 어떤 즐거움' 을 잠시 멀리하는 것뿐이다. 이에 반해 동물들은 인간의 단순한 식도락을 위해 그들의 하나뿐인 생명을 내놓는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윤리적 행동원칙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형식의 행위원리가 될 것이다.

원리(1) : 도덕적 지위를 가진 어떤 존재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대안 A가 존재하고, 이 대안 A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 어떤 존재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동일한 행위자에게 이익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대안 A를 행해야 한다.

원리(2) : 만약 기본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어떤 자원의 부당한 몫을 차지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대안 A가 존재하고 이 대안 A가 여전히 그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대안 A를 행해야 한다.

원리(3) : 어떤 사람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덕적 지위를 가진 다른 존재의 기본적인 이익을 결코 희생시키지 말라.

위의 도덕원칙들은 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우리가 고기로부터 얻고자하는 어떤 이익을 다른 방법으로도 획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이다. 인간들에게 고기는 사치품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자신의 하나 뿐인 생명과 관련된 필수품인 것이다. 따라서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는 한 우리는 굳이 동물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논평자 역시 가능하다면 육식문화를 채식문화로 바꾸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 자신부터 채식주의로의 전환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수십 년 동안의 식습관 때문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자는 요즘 들어 적어도 피터 싱어가 말하는 양심적인 고기소비자 또는 합리적인 잡식주의자 정도는 되려고 애쓰고 있다는 고백의 말씀을 드린다. 가능하면 집 안팎에서 일부러 고기음식을 먹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정해 놓은 특정한 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살(고기)' 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삼가 하고자 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사족 한마디를 덧붙여 본다. 불살생계의 실천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불교윤리는 육식문화와 이의 폐해에 관한한 도덕적 전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들에 대해 지금까지 불교가 그래왔던 것과 같은 태도로부터는 제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다. 비유하자면 육식문화의 만연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 더 이상 '동백 아가씨' 나 '애수의 소야곡' 처럼 감상적으로 들리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과 랩핑, 그리고 브레이크댄스"와 같은,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울림으로 사부대중의 가슴에 와 닿았으면 하는 희망을 품어 본다는 말이다. 앞으로 불교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 더욱 현실적인 설득력으로 울려 퍼질 그 날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무거운 논평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한다.

끝으로 훌륭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희종 교수님과 한국불교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은 지난 1월 18일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삼성전자(주) 부사장 故 張炳祚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이범달(에스텍시스템 사장)님이 법공양하였습니다.

(社)韓國佛教學會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만해관 127호
Tel. 02-2260-3130 Fax. 02-2273-3133
http://ikabs.org